

#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밀그림 나왔다

목포·완도·진도·신안 공동 용역  
5대 목표 29개 중점사업 제시  
2028년 공동 개최 활동 돌입



최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8년 세계 섬엑스포 유치 용역보고회'. <목포시 제공>

목포시와 완도·진도·신안군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의 밀그림이 나왔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4개 지자체는 최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섬의 소통과 협력, 섬의 날이 제정된 2018년과 연계해 10년 주기 국제행사 추진, 섬 정책·로컬 산업 육성 박람회 개최 등에 역점을 뒀다.

또 서남해안 섬벨트 공동발전을 위한 ▲생명의 섬 ▲에코 비즈니스의 섬 ▲살기 좋은 섬 ▲주목받는 섬 ▲사업의 실행력 확보 등 5대 목표, 10대 실행 전략, 총 29개 중점사업이 제시됐다.

목포시는 앞으로 세계 섬 엑스포 개최 당위성과 섬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 세계 섬 네트워크 교류 협력방안, 엑스포장 기본구상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8년 섬·관광 관련 국제기구

UNWTO 등이 승인하는 '세계 섬 엑스포'를 서남해안 지역에서 공동 개최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45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섬 엑스포 유치에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추진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에서부터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올해 유치추진준비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 구성하고, 국제 섬 포럼 개최 등 범국민적 분위기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남해안권 섬벨트를 이루고 있는

목포·완도·진도·신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역 인지도 상승, 획기적인 SOC 확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대규모 국제행사인 엑스포를 유치해 지속 발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남 서남해안권이 상생발전하면서 섬 정책 추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동력을 차근차근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과 전북 생산·유통단체들이 지난 24일 전북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완도군-전북 생산·유통단체, 공정거래 '맞손'

출하가격 안정·덤문화 개선 협약

완도군과 전북 생산·유통단체가 전북 공정거래를 위해 손을 잡았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과 전북 생산·유통단체들이 최근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한국전북생산자연합회, 완도전북주식회사, (사)한국전북유통협회, (사)남도전북연합회, (사)한국전북수출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단체들은 전북 출하 가격

안정과 덤문화 개선, 거래명세서 주고받기, 공정한 전북가격 지키기 등 '공정한 전북 거래 실천운동'을 펼친다. 그동안 전북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에 분쟁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산물 소비 트렌드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 공정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35억원 조기 지급

진도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35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진도군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 26일부터 읍·면사무소와 농협에서 마을 회관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지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60만원을 조기 지급한다.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신청자 6156명 중 적격 여부 검증을 통해 5859명에

게 오는 5일까지 마을에서 현장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은 마을별로 지정된 배부일에 맞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마을 방문을 통한 공익수당 지급 등 농어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영농철 이전에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전액 일시 지급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신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안 튤립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튤립꽃을 제거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튤립 꽃봉오리 제거하는 모습. <신안군 제공>

## 신안군 튤립 100만송이 올해도 '썩둑'

지난해 이어 튤립축제 취소

상춘객 임자도 방문 사전 차단

"형형색색의 튤립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겠지만, 직접 볼 수 없겠네요."

지난해 형형색색의 튤립꽃봉오리 100만 송이를 눈물을 머금고 썩둑 잘라버린 신안군이 올해도 꽃을 제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튤립축제를 전면 취소하면서다.

신안군은 4월 중순 개최 예정이던 '2021년 섬 튤립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펴보면 비대면 랜선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3차 대유행 이후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

안군은 설명했다.

튤립축제가 열리는 임자도는 3월 임자대교 개통과 함께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많은 상춘객이 임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안군은 임자도 방문 자제 홍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튤립 개화 전 꽃봉오리를 제거해 상춘객들의 현장 방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현장에는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할 방침이다.

튤립축제는 대광해변의 백사장(12km)과 100만송이 튤립, 유채꽃 등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섬 꽃 축제다. 신안군은 2019년 세계튤립정상회담(WTS-World Tulip Summit)에서 튤립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국가중요과학기술휜 등재

9000만년 전 백악기 고생물화석군  
국내 자연사 분야 첫 과학기술 유산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이 국가중요과학기술휜로 등재됐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이 지난해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휜로 등재됐다.

국가중요과학기술휜 등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연사 분야로는 처음으로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 발자국 화석(해남공룡박물관)과 신안

암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 화석(목포자연사박물관)이 등록됐다.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휜로 등재됨에 따라 천연기념물로서의 희귀성은 물론 후대에 보전해야 할 과학기술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게 됐다.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은 한반도 남부가 백악기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로서 공룡과 익룡, 새가 공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약 9000만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고생물 화석군으로, 몰갈퀴새 발자국 화석은 세계 최고(最古)로 알려진 미국 애오세 지방의 신생대 지층보다 4000만년 정도 앞선 중생대 백악기 지층으로 밝혀졌다.

해안선 곳곳에서 세계 최대(25~30cm) 크기의 움푹 팬 공룡 발자국 화석이 산재해 있으며, 몰갈

퀴 새 화석은 주위 퇴적암 절벽에 1000개 이상 찍혀 있다.

1998년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됐다.

해남군은 지난 2007년 국내 최대규모 공룡 관련 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천연기념물과 국가중요과학기술휜를 동시에 보유한 박물관으로서 위상과 가치가 높아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 발자국 화석은 백악기 해남이 공룡과 익룡 몰갈퀴 새들이 공존했던 지상 낙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 자연사 자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석지 보존과 관리를 통해 후대에 그 가치를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저음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저음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